

한국농어촌공사 진도지사, 저수율 50.4% 가뭄 경계...둔전저수지 제한급수 시작

[김준혁]

둔전저수지 저수율 23.8% 심각단계...퇴수 양수 작업 등 선제 대응
"기상·저수율 지속 모니터링...농민 물 절약 협조가 가뭄 극복 핵심"



한국농어촌공사 진도지사가 강수 부족과 폭염이 이어지는 가운데 농업용수 부족에 대비한 선제 대응에 나섰다 [사진제공=한국농어촌공사 진도지사]

[폴리뉴스 김준혁(=호남) 기자] 한국농어촌공사 진도지사가 강수 부족과 폭염이 이어지는 가운데 농업용수 부족에 대비한 선제 대응에 나섰다.

진도지사(지사장 최진)에 따르면 진도군 농업용 저수지 현재 저수율은 50.4%로 평년 대비 72.6% 수준에 머물고 있다. 폭염과 저조한 강수량이 이어지면서 농업가뭄 경계단계 진입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특히 둔전저수지는 저수율이 23.8%(평년 대비 35.6%)로 농업가뭄 심각단계에 해당해 제한급수를 시작했다. 진도지사는 농업용 퇴수를 다시 저수지로 양수하는 작업을 실시하는 등 가뭄 선제 대응에 나서고 있다. 가뭄이 예상되는 시설에 대한 현장 점검을 실시하고 취약지역을 중심으로 가뭄대책을 수립해 시행 중이다.

최진 진도지사장은 "기상 상황과 저수율 변화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며 가뭄 단계별 대응체계를 운영해 농업용수의 안정적 공급에 만전을 기하겠다"며 "농민들의 협조와 물 절약이 농업가뭄 극복에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다.